

진안 용담면 월계리산성 축조연대 · 유적 성격 파악

군, 전북도와 발굴조사 추진... 전북 동부 가야세력과의 연관성도 큰 주목

진안군은 전북도와 함께 용담면 월계리에 위치한 월계리산성의 축조연대와 유적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성남리산성으로도 불리는 월계리산성은 돌을 쌓아 축조한 석성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용담현조에 기록된 '고산성(古山城)'이나 '일본서기'에 기록된 '대산성(大山城)'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월계리산성은 현재 용담댐 수몰지역에 위치하여 용담호에 둘러싸여 있으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는 진안을 경유하는 육로와 금강 상류의 수로 교통로를 통제하였던 핵심유

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북 동부지역에 자리했던 가야세력과의 연관성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와 진안군은 산성의 정확한 규모와 잔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성의 둘레는 584m이며, 성문이 있던 문터 2개소와 건물기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평탄대지, 성안의 물이 모여 흘러나가는 수구지(水口址) 등의 존재가 파악됐다. 또한 시굴조사에서는 건물터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렬(石列)과 배수·집수시설로 추정

되는 판석(板石)시설 등이 조사됐으며, 토기와 기와, 철기류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전북도와 진안군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 남문지와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의 세부적인 축성기법과 구조, 운석기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월계리산성의 유적 실체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산성의 추가 조사 및 정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산성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석렬(사진 왼쪽)과 수구지.

'그림 대작' 사기냐 예술이냐... 조영남 사건, 대법 공개변론

조영남, 사기 혐의 1심 유죄→2심 무죄
대법원, 공개변론 열고 쟁점 심리해

가수 조영남(75)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이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다뤄지게 됐다.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사기인지 또는 예술인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5월 28일 조씨 등의 사기 혐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 조씨는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조씨는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부터 재판 과정은 치열했다. 조씨의 그림 대작을 두고 범죄에 해당되는지 또는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졌다. 1심은 조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조씨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 이같은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미술저작권에서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 방식과 시기,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 조씨의 친작(親作) 여부, 구매자들의 본질적인 구매 동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공개변론에서는 검사와 조씨 측 변호인 양측의 의견진술, 예술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직접 질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남원시는 지난 24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문가야의 시작'

남원시,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국가문화재 지정 학술대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24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청계리·월산리 고분군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지역 가야 연구의 권위자인 광장군 교수의 개회사로 국내 고대사 및 가야사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청계리·월산리 고분군의 성격과 지정문화재를 위한 중요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학술대회 발표는 제1주제는 청계리 청계고분군의 구조와 축조기법, 제2주제는 청계리 고분군 출토유물 연구, 제3주제는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제4주제는 청계리·월산리 고분군의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가 이뤄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청계리·월산리 고분군의 역사성과 함께 ▲호남지역에서 가장 이르고 규모가 가장 큰 가야계 고총의 구조와 축조방법,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수레바퀴 장식 토기 조각을 비롯한 다수의 함안 아라가야계 토기, ▲호남지역 가야 고총에서 최초로 확인된 왜계 나무 빗(수갈, 戔耨) 등 남원 아영분지 일대 고대 정치조직의 실체와 변화상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인되어 고분의 축조와 대외 활동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청계리·월산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문화재 지정으로 승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청계리·월산리 고분군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빠른 시일 내 국가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행운 비밀 분석 '더 해빙',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차지

부아 행운의 비밀을 분석한 '해빙'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차트 정상에 차지했다. 지난주보다 두 계단이 뛰어올랐다. 지난 15~21일 차트에서 '해빙'은 유튜브 콘텐츠 만화 '흔한남매4'와 문학동네의 제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을 따돌렸다. 현실에서 1cm 벗어나는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을 담은 '1cm 다이빙'은 전 주보다 3계단 올라 4위에 걸렸다.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책들이 주목받았다. tvN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에 나온 조지 오웰 소설 '동물농장'은 전 주보다 64계단 올라 130위에 랭크됐다. 2016년 8월 출간된 '지



리의 힘'도 TV 전파를 탄 뒤에 20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김현정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베스트셀러 담당은 "지리의 힘"가 속해 있는 정치사회 분야는 대체적으로 남·여 비중이 같거나 남성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나, 해당 도서는 여성 비중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40대 여성이 29%, 40대 넘어 전체가 37%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